

지금이라는 영원永遠

| 프랜시스 루실 | 김현정 옮김 |

우리가 밖에서 보는 사물들은 사실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시각적 상채를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 몸'이라 여기는 것도 사실은 내적인 촉감적인 상채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도 몸 속에 있는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몸이 '우리 속에' 느낌으로 존재해 왔음을 인식하는 순간 함께 지어진 몸을 떠나 영원으로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당신은 진정한 본성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당신은 내 경험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군요. 자세히 말하기 전에, 내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해둡니다.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 경험은 갑작스럽고 극적일 수도 있고, 미묘하게 서서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그것이 깨달음인지의 기준은 길이 끝났을 때 경험하는 평화와 이해입니다.

진리에 대한 첫 일견은 우주적 차원의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경험은 초기에 자아의 구조가 무너질 때까지 마음의 배경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건물이 몇 개월 후에 서서히 또는 갑자기 붕괴되는 것처럼 그 효력을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첫 일견이 마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자아의 노예였던 마음이 이제 생각과 개념들을 환히 밝히는 영원한 그 광채를 섬기는 하인이자 추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노예였을 때 마음은 시간과 공간과 인과관계로 만들어진 감옥의 간수였지만, 최고 지성의 하인이자 미의 추종자가 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책을 읽으면서 진리에 대한 흥미를 활활 타오르게 한 일견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나중에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 버린 진리에 대한 강렬한 탐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책들을 비롯하여 아드바이타 베단타¹⁾와 선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여러 번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영적 이해에

1) 불이일원론不二元論 : 주요한 두 베단타학과 중의 하나로, 브람만의 존재만을 주장하고 현상계는 무지에 바탕을 둔 환영이라고 주장 - 역주

준하여 살기 위해 실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과학자였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한 경력이라 부르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 일이 프랑스군의 정교한 무기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처음으로 맞본 뒤 2년 동안 나는 비이원론적 관점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했고 비록 몇 가지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킬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몸이나 마음이 아닌 의식이라는 사실이 내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히 지적 지식이 나 개념이 아닌 경험에서 기인한 지식처럼 보였습니다. 객관적 실재성이 전혀 없는 특별한 경험에서 기인한 지식 같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나는 지복과 빛과 침묵이 인식들을 둘러싸고 서서히 스며드는 상태를 경험했었습니다. 물리적 객체들은 내게서 더욱 더 멀어진 듯 보였고 또한 비현실적으로 보였는데, 마치 진리가 물리적 객체들로부터 떠나버린 것과 같이 무대의 중심에 있던 바로 그 빛과 침묵으로 옮겨가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양 그대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옳고 바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깨달음이란 마음과 같은 제한된 것들이라 생각했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나는 아드바이타나 선불교의 경전들을 읽는 중이나, 비이원론적 관점에 대해 깊이 숙고하다가 깨달음의 무한함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물질주의적이고 반종교적 교육과 그동안 배워왔던 수학과 물리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종교든 선뜻 믿지 못하였고 논리나 과학으로 입증된 가설이 아니면 어떤 것이든 의심을 했습니다. 한계가 없는 보편적 깨달음도 내게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

적인 믿음이나 가설처럼 보였지만 마음을 열어 그 가능성을 탐험해본 것이었습니다. 사실 무변광대함의 향기는 진리를 추구하는 내 활동을 지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처음으로 진리를 짧게 맛보고 난 뒤 이년 동안, 이 가능성은 주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해서 이 기대에 어긋난 사건은 별다른 원인 없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서 흘러나오는 불가피성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나 사람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명상을 한다고 거실에서 친구 두 명과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명상 후에 먹을 저녁식사를 준비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딱히 기대도 없어서 나는 어떤 것에든 열린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몸은 목과 등이 조금 불편했지만 이완되어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한 친구가 갑자기 산스크리트어 주문인 가야트리 만트라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성한 만트라와 음절들이 침묵 속에 있는 나의 존재와 신비스럽게 공명하기 시작했고, 내 영혼이 생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 내가 최대치로 살지 못하도록 어떤 저항이 나를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로부터 온 이 초대에 모든 존재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녹아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만트라가 뿜어내는 아름다움에 매혹 되면 될수록 저항도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었던 저항이 나중에는 엄청난 공포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

으로 인하여 내 편에서 놓아버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고 만트라가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더 열렬히 환영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삶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영적 추구의 결과로서 세계와 그것의 대상들이 매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절대에게만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에게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빈 공간에 뛰어든 대담함을 얻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너머로 나를 부르고 있는, 이제는 그다지 멀리 있지도 않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 죽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리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공포가 순식간에 약화되더니 몸의 감각들과 생각들의 물결로 바뀌었고, 이 물결은 단 하나의 생각, 참나 생각I-thought으로 빠르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와 뿌리 등이 모두 나무의 몸통에 집중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인 통각²⁾의 경험 속에서, 내가 동일시하고 있던 개인적 독립체가 모습을 전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것의 상부구조인 생각들을 봤습니다. 참나 생각을 비롯하여 그 독립체의 하부구조, 다시 말해 육체적 차원에서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욕망의 흔적에서 기인한 생각들을 봤습니다. 그런 뒤 어떤 비인격적인 눈이 나무 전체를 응시하자, 사고라는 상부구조와 육체적 감각이라는 하부구조가 의식의 장에 오직 참나 생각을 남겨둔 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 순전한 참나 생각은 기름이 다 떨어진 램프의 불꽃처럼 오락가락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 꺼지지 않는 불멸의 바탕인 존재가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랜시스 루일의 『지금이라는 영원Eternity Now』에서 발췌

2) 통각統覺 경험이나 인식을 자기의 의식 속으로 종합하고 통일하는 작용 - 역주

이런 만남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은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대하지 않은 방법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몸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정신적, 물질적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첫 걸음이지만 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육과 내장기관은 물론 세포들까지 간파해서 해방시키는 경험을 실제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순간의 인식을 통해 얻게 된 지적인 이해는 반짝이는 순수한 기쁨을 주지만,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완전한 지식을 얻었을 때 우리는 곧 그 기쁨이 됩니다.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몸의 확장과 이완을 지각하고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지각이 있기 전에, 우리는 시간이 없는 무한한 상태에, 원인이 없는 완전한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때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궁극적 결과일 뿐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기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주에서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우리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을 깊이 탐구할 때, 우리는 그 실체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욕구도 없고, 맛보기로 하는 짧은 경험도 없으며, 심지어 우리는 외부 대상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간은 몸의 진정한 실체인 자체 발광하는 공간으로 드러납니다.

그 순간 몸과 공간 사이의 이원성은 사라집니다.

몸은 우주만 한 크기로 확장되고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 심오한 탐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감지하는 몸의 감각과 감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이 깨어있으면서 그 감각과 감정이 활짝 피어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긴장된 근육 속에 간혀있던 잠재적 에너지가 점차 해방되고, 정신과 신체라는 구조물이 서서히 활기를 잃어갈 것입니다. 그때 근원적 안정감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몸의 감각이 지닌 이 정화는 엄청나게 위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결의와 용기가 요구됩니다. 감각 차원에서 정화는 주변 공간으로 몸이 점차 확장되어 주변공간 속으로 신체구조가 스며드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 공간은 단순히 객관적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어떤 것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지각하고 인식하느라 주의를 온전히 빼앗기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 공간은 몸의 진정한 실체인 자체 발광하는 공간으로 드러납니다. 그 순간 몸과 공간 사이의 이원성은 사라집니다. 몸은 우주만 한 크기로 확장되고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인 몸, 각성된 몸, 우주처럼 환영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결손 부분이 없이 완전합니다. 당신의 왕국을 탐험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궁색한 판잣집 같은 제한된 몸에서 살지 마십시오.

저는 침묵 속에서 여러 차례 짧은 일견을 경험했는데, 일하러 직장에 나가면 시끄럽고 고상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고요함은 이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평정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단지 알아차림일 뿐입니다. 당신의 동료들과 고객들, 상급자들과 부동산과 가구나 장비를 포함한 모든 것은 그저 그것들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 친숙한 느낌,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비로운 공간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디서나 심지어 사람들로 꽉 찬 열차대기실에서조차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갈 때만 그 공간에서 나오면 됩니다. 가족우리 같은 곳에서 있지 마십시오. 이 무변 광대함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의 존재에 익숙하다면 그리고 그 조화로움의 근원적인 출현을 한 번 맛보았다면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들과 몸의 감각들이 당신의 따뜻한 알아차림 속에서 자유롭게 만개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자애로움이 라는 배경이 스스로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 같은 시각의 전환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20세기 초 그림들 속 나무에서 천사 얼굴을 찾아내는 놀이와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만 보이다가, 그림 아래의 설명에서 천사가 나무에 숨어있다는 것을 읽고부터는 잎사귀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사를 찾아냅니다. 늘 눈앞에서 있었던 천사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숨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나무가 점차 그 형태를 잃어가다가 새로운 윤곽이 드러나고 재구성되면서 이미지의 비밀이 벗겨지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길이 나기만 하면 이미지를 기존의 시각과 다르게 보는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

고 어느 순간에 천사와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일단 인식되기만 하면, 무지와 알아차림 사이에 남아있던 구분도 점점 희미해지고 존재의 근본적 성질로 대체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몸과 감각들과 분리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인상에 껌처럼 착 달라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껌처럼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자존감과 감정에 사로잡혀, 특히 분노에 사로잡혀 최면에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속에서 느껴지는 흥분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최면에 걸렸음을 깨달은 그 순간, 최면은 풀립니다.

뭐라고요? 그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최면에 걸린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탐구하십시오. 그것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개체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탐구해보면 ‘나는 여자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변호사다’와 같은 동일시에서 나오는 개념들만 발견할 것입니다. 또 다른 동일시인 몸의 감각들, 즉 더 불투명하고 조밀한 어떤 영역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아니고, 여자라는 생각이 아님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왔다가 가지만 진정한 당신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걸 아는 순간 최면은 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 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그것들과 동일시하는 것보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일시를 인식하자마자 당신은 그것과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을 어디에도 위치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위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자마자 다른 정체성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기존의 나뭇가지를 놓기 전에 다시 새 나뭇가지를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집착도 하지 않고 허공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 장애물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약간 이상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머니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실용적인 일입니다. 삶이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이해만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이해를 실행으로 옮겨보십시오. 아무도 아닌 상태를 경험해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있다가 다시 몸으로 돌아와 일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한 번도 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되돌아오는 질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일련의 감각적 인식과 개념들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몸을 느꼈을 때나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 개념들과 사고들은 당신 안에서 떠오릅니다. 당신이 그것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선생님과 사회가 당신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반대로 당신은 개념과 사고 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했던 경험과 명백히 모순되게도, 그들은 당신이 신체 기관인 두뇌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기능인 의식으로

서 몸속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간접적 지식들을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달해주었던 행복해지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었다면 당신은 여기 앉아서 질문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짓된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몸이나 마음으로 드러나는지, 그와는 반대로 당신 안에서 그 것들이 드러나는지 스스로 탐구하십시오. 그때 나무에서 천사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혁명과도 같습니다. 나무가 사실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정말로 수용한다면, 천사가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고 당신의 삶은 마법이 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직관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한 개인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지혜에 따라 진실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감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행동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가슴의 충만함으로 진실로 살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요?

오, 그럼요. 당신은 포함의 관계에 있는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몸과 마음처럼 당신의 진정한 자아 속에 포함됩니다. 사랑은 포함입니다. 이해는 중간에 있는 단계이지만 마지막 종착점, 진정한 중심은 가슴입니다.

원숭이 사례를 빗대자면, 이 나뭇가지와 저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장소가 가슴입니까?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잡지 않은 채 기존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아버림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가슴을 이해할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당신이 받았던 교육과 소유물과 삶, 적어도 지금 당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답해야 합니다. 일종의 자살이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기억에 선행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것과 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았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유는 그 초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한 이유는 그때까지 나는 상대적 행복과 상대적 진리와 상대적 지식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음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아는 모든 개념, 모든 투사 너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가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도록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입니다.

제가 그 초대를 미루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이 급격하게 변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제 가족들도 그럴까요?

당신의 가족들도 그럴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떠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당신이 전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초대를 받은 뒤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언젠가 다시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준비하십시오. 가슴을 열어놓으십시오. 당신이 왕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열려 있게 됩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

으면, 당신은 빈 방이 됩니다. 빈 방이 되자마자 당신은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왕관을 들고 들어와 당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끝) 

- 이 글은 『A Spiritual Awakening』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네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프랜시스 루실** Francis Lucille | 아드바이타 베단타(비이원성) 전통의 영적 스승이다. 1975년에 프랑스인 아드바이타 스승인 진 클라인Jean Klein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막역한 관계는 1998년 스승이 타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진 클라인은 자신의 구루인 판디치 Panditji 라오를 1950년대에 인도에서 만났다. 그는 방갈로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고 전통 아드바이타 베단타 계열에 속해있었다. www.francislucille.com

역자 | **김현정** | <지금여기> 번역위원. 2002년 3개월간 유럽의 공동체,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 웨이커 교도의 공동체 우드부룩, 기독교 공동체 브루더호프 등을 다녀왔다. 각 공동체에서 머물면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함을 느꼈다. 역서로는 『나눔의 밥상』이 있다.